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변리사

인권의 관점에서 본 전지구적 지적재산권 체제

: 한-미 FTA 및 한-EU FTA 사례 연구와 함께

남희섭 씀



"희섭이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휴리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본의 이윤추구나 권력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 말입니다. 희섭이가 쓴 논문을 읽으면서 지금은 거의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가끔 불렀던 노래 중 '이 세상 사는 동안'이라는 노래가 오버랩되었습니 다. 그 노래에는 '아무도 뺏지 못할 생의 자유를 되찾자'라는 구절이 있는데 희섭이는 이런 '아무도 뺏지 못할 삶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자유주의와 트립스체제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직 '아무도 뺏지 못할 삶의 자유'를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희섭이는 그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받았던 상처가 다 씻긴 곳에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뺏지 못할 삶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은 남은 자들의 몫일 것입니다."

- 희섭이의 3주기를 맞아 가족을 대신해 남찬섭 씀

정보공유연대 IPLeft

1999년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이 시민사회단체 내부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지적재산권연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졌다. 이후, '공유적지적재산권도 임 IPLeft'로 이름을 바꾸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적 비판, 현실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비판, 대안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모색, 카피레프트 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가 급증하고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02년 2월 '정보공유연대 IPLeft'로 이름과 조직의 형태를 바꿔 활동의 폭을 더욱 넓혔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적재산권 제도와 이를 강화하려는 경향에 의해 정보가 독점됨으로써 현실에서는 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창작과 발명을 촉진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사회계층 간, 국가 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경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진정한 혁신과 창조를 위해서는 정보독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보다는 정보공유의 미덕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남희섭

남희섭이라는 이름 뒤에는 "지식독점에 맞서 생명과 인권을 옹호했던 변리사"라는 수식이 붙는다. 그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희섭 변리사는 한국 사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며 운동장에 송곳처럼 등장했다. 이후, '지적재산권 연구회'에 합류하며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로 시작해 대표까지 역임했다.

남희섭 변리사는 2000년대 초반 만성골수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이 한알에 약 2만5,000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책정되자 약가 인하와 보험적용을 요구했던 환자들한테 "공중의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 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강제실시'라는 운동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변리사인 그의 일관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남희섭 변리사는 2006년 한미FTA 협상이 개시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한다. 독일과 영국 유학으로 '지적재산권과 인권'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13년에는 정보문화향유권을 인권의 한 영역으로 규정하며 운동에 매진한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는 거대 제약회사의 탐욕과 백신 국수주의를 목도하고는 곧바로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재권 공개 특강'에 나서는 등 열정을 불태웠다.

'지식재산'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평생을 헌신한 남희섭 변리사(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그는 2021년 5월 10일 영면했다.